

No.28호 2024. 09.

김희균 · 최경인 · 지명 · 명재 선교사의

바누아투 선교 이야기

※ 생애 선교센터로 가는 길

STORY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분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한국에서의 기록적인 폭염과는 반대로 남반구인 이곳 바누아투에서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시원함으로 놀람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우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건기의 시원함이 감당 못 할 무더위로 반전되지는 않을지 한편으로 걱정이 앞섭니다.

† 부시 어린이 기도 캠프

올해 처음으로 산속에 있는 어린이들을 선교센터로 초청하여 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6개의 선교지역에서 현지 사역자들이 가르치고 있는 어린이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 중에는 난생처음 집을 떠나 시내에 나와 본 어린이들도 있었고 대다수는 '캠프'라는 것을 처음 접하는 것이었기에 무엇을 하게 될지 긴장 반, 기대 반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100여 명이 조금 넘는 어린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현지 사역자들과 도우미로 함께 온 마을 어른들까지 더하면 150명이 넘는 인원이었습니다. 캠프를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질그릇에 담긴 보화"였습니다. 어린 영혼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꼭 담기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활동들에 눈이 커지기도 하고, 찬양과 율동을 배우며 또 말씀을 들으며 어린이들의 마음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 발레발렛의 시작

해가 거듭될수록 바누아투도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불과 지난 몇 년 사이에 일어난 변화 중 하나는 산속에 살던 부족민들이 자신들의 터전을 떠나 산 아래로 점점 이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교육 그리고 삶의 편의를 위해 산속에서 내려와 차가 다니는 길가에 새로운 마을을 이루고 살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터전을 떠난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복음을 접할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 중 한 마을이 '발레발렛'이라는 마을입니다. 걸어서 4~5시간 걸리는 부시 중앙 지역에서 내려온 이들입니다. 전에는 바하이 혹은 토속신앙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곳에서부터 멀어지니 자연스레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중립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들과 접촉하여 교회와 학교를 세우기로 하고 땅을 기증받아 세울 자리에 돌을 놓고 예배로 시작의 종을 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실지 기대가 됩니다.

† 컨퍼런스와 선교 훈련학교

올해 세 번째 컨퍼런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산속에 있는 모든 현지 사역자들과 학생들이 컨퍼런스 참석을 위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시작 전부터 전과는 다른 무거운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컨퍼런스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 무엇인가 짓누르는 답답함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는 현지 사역자들 안에 무너진 영역들이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관계 안에서의 갈등, 영적인 건조함, 나태함, 외로움 등 지난 3개월을 지나오면서 알게 모르게 무너졌던 영역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 Episode 2.

지명이와 명재가 한 주를 지내면서 가장 기다리는 시간은 럭비 운동을 하는 시간입니다. 일주일에 두 번뿐이지만 이 시간이 되면 바누아투 친구들뿐만 아니라 산토 섬에 거주하는 각국의 또래 친구들이 다 함께 모이게 됩니다. 변변한 체육 시설은 없지만 풀밭에서 친구들과 땀 흘리며 럭비를 하는 이 시간은 무료한 일상을 달래주는 활력소인 셈입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던 어느 날, 상대방의 태클에 지명이가 넘어지면서 오른쪽 채골이 골절되고 말았습니다. 2년 전, 왼쪽 채골이 부러졌었는데 이번에는 오른쪽이 부러진 것입니다. 이미 한 차례의 경험이 있는 지명이는 앞으로의 치료 기간이 막막했던지 너무나도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후 동생 명재가 럭비 운동을 하다 태클에 넘어지면서 왼쪽 팔이 골절되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 깁스를 하지 못해 팔걸이 붕대를 했는데 지명이는 오른팔에 명재는 왼팔에 한 모습을 보자니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기타를 칠 수 없어 지명이는 왼팔로 코드를 잡고 명재는 오른손으로 기타를 치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 이내 마음이 흐뭇해졌습니다. 힘든 이 시간이 오히려 두 자녀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기회가 되었을까요? 저녁 기도회 시간, 불 꺼진 예배당 한쪽에서 나란히 앉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 아픔과 걱정은 변하여 감사가 되었습니다.

† Episode 3.

올 추석에는 산토섬에 거주 중인 한인 분들을 모두 초청하여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가정이 처음 바누아투 왔을 때만 해도 이곳 산토섬에는 한인이 네 분 밖에 없었는데, 7년이 지난 지금에는 저희 가정과 아이들 포함 21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분은 개인 사업으로, 다섯 분은 도로공사 감독관으로, 일곱 분은 선교사로 이 중 6명이 산토 부시미션 선교사입니다. 처음으로 다 함께 모여 식사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한인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함께 모여 모국어로 예배드리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곳에 있는 한인분들이 함께 협력하며 좋은 관계로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영역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모두가 “회복자”로 다시 산에 올라가길 원하셨습니다. 저녁 예배 전, 개개인 안에 무너진 영역이 무엇이고 어떻게 회복되길 원하는지 생각해 보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보거나 나눠 본 경험이 적어서 그런지 질문을 이해하기까지 한참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에 관련된 말씀을 선포하고 회복하길 원하는 영역들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냉랭하던 기도에 간절함이 묻어나오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날 현지 사역자들과 학생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짓누르던 무거움이 어느새 사라지고 다시 생기를 회복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컨퍼런스 이후, 연이어 15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교 훈련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는 선교 훈련학교를 시작한 지 2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연말에는 이 학생들이 첫 졸업생들이 되어 현지 사역자들로 세워질 것입니다. 복음으로 무장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Episode 1.

“산토 부시미션(Santo Bush Mission)”에 새로운 한국인 한 가정이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뉴질랜드 WEC 소속으로 바누아투를 위해 기도 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이곳 산토섬에 오게 되었습니다. 어린 세 자녀들과 함께 낯선 땅에 와서 정착해 가는 과정을 보며 좌충우돌하며 적응해 나갔던 저희 가정의 초창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반가운 마음과 동시에 짝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언어, 문화, 환경, 사람들에 적응해 나가는 이 시간들이 분명 새롭고 감사한 일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시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팀 동료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지 고민해 보게 됩니다. 한국인 세 가정, 30명의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아름다운 팀 사역을 이루어 가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선교훈련 학교 수업 중

하지만 첫날 저녁 집회 시간, 기도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에게 무리였을까요? 너무 짧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저녁 집회 전부터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총력을 기울여 기도에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 주셨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현지 사역자들의 마음 역시 만져 주셨습니다. 서로 부둥켜안으며 눈물로 기도하고 축복하는 은혜의 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한 주간의 캠프를 마치고 모두가 산속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후에 현지 사역자들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캠프에 참여했던 어린이들의 예배 자세가 눈에 보이게 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에는 사람들 앞에서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서로 하겠다고 나서는가 하면 찬양하는 목소리와 기도가 달라져 그것을 보는 부모들이 바뀐 모습에 놀라워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것들을 보고 경험한 아이들이 다른 마을 친구들에게까지 자랑하면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고 하였습니다. 내년 캠프가 벌써 기대가 됩니다. 어린이 기도 캠프 소식이 복음이 닿지 않은 주변 단한 마을들에 널리 퍼져 많은 아이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어린이 캠프 영상은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erVPG 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 어린이 캠프의 시작을 알리는 장면

● PRAYER ●

1. 바누아투 항공사의 파산, 장관들의 잦은 교체, 그리고 교사들이 장기간 파업으로 정치, 경제, 교육이 매우 불안정합니다. 바누아투 나라를 지켜주셔서 정치, 경제, 교육이 안정화 되도록.
2. 현지 사역자들이 올해 남은 사역을 위해 다시 산에 올라갔습니다. 각 선교지역마다 아름다운 팀 사역을 이루도록.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사역의 현장에서 기도로 승리하도록.
3. 첫 어린이 기도 캠프가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산 속의 어린이들이 믿음에서 계속 자라가며 각 선교지역마다 어린이 사역이 활성화 되도록.
4. 셀레 학교에 하나님께서 정부 교사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셀레 선교지역에 파송된 현지 사역자들(마틴, 올린, 비키, 마싱, 베벨로)과 교사, 간호사가 한 팀이 되어 복음의 사역을 더욱 힘 있게 감당하며 이곳을 통해 부시 중앙 지역에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도록.
5. 지명이 영재의 굴절된 뼈가 잘 붙도록. 이번 캠프와 컨퍼런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명이 영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더욱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며 건강한 성품으로 자라가도록.
6. 새롭게 산토 부시미선에 합류한 구성군, 최예지(사랑,새론,하일) 선교사 가정의 잘 정착해 가며 아름다운 팀 사역을 함께 이루어 가도록.



소속단체 GMP(한국개척선교회) | 파송교회 부산 호산나교회
 김희균 선교사 @kimhgdavid@gmail.com 📞 kimheegeaun
 최경인 선교사 @worship1225@hanmail.net 📞 worship1225
 전용계좌 KEB 하나은행 303-04-00004-431 GMP김희균